北 3차 핵실험 임박 '긴장의 한반도'

北고위급인사 핵실험장 방문… 軍, 갱도구조 첫 확인

류우익 "가능성 높다… 핵무기 몇개 만들능력 있을것"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가림막이 설치된 서쪽 갱도에 최근 고위급 인사들이 탄 차량이 방문, 최종 점검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北 핵실험장 갱도 구조 첫 확인=풍계리 핵실험장의 수평갱도 내부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는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010년 9월 8일 보도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내부 구조가 담긴 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길이 1㎞ 내외의 수평갱도는 달팽이관 모양으로 이뤄졌으며, 두께 1m 내외의 강철과 콘크리트로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9개의 차단문이 설치됐다. 핵폭발 장치가 터지면 물질과 가스 등이 1~3번 문에서 대부분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팽이관 모양의 가장 안쪽에 설치된 핵폭발 장치를 터트리면 가스나 잔해가 갱도를 따라 급속히 퍼지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1번부터 9번까지의 차단문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핵폭발 잔해를 차단하고 폭발 당시 힘이 차단문에 급격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격벽도 세 곳이나 설치됐다.

◇"핵실험 가능성 높다"=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4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한 뒤 3차 핵실험 예상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지만 이 자리에서 날짜를 적시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핵실험이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하면서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실험 예상 시점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면서도 "첫 핵실험이 미국 콜럼버스 데이, 두 번째가 미국 메모리얼 데이에 있었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미국 행사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언론에 나왔으나 슈퍼볼 얘기도 나왔고, 2월12일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있으며, 2월18일은 미국의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다"며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있으나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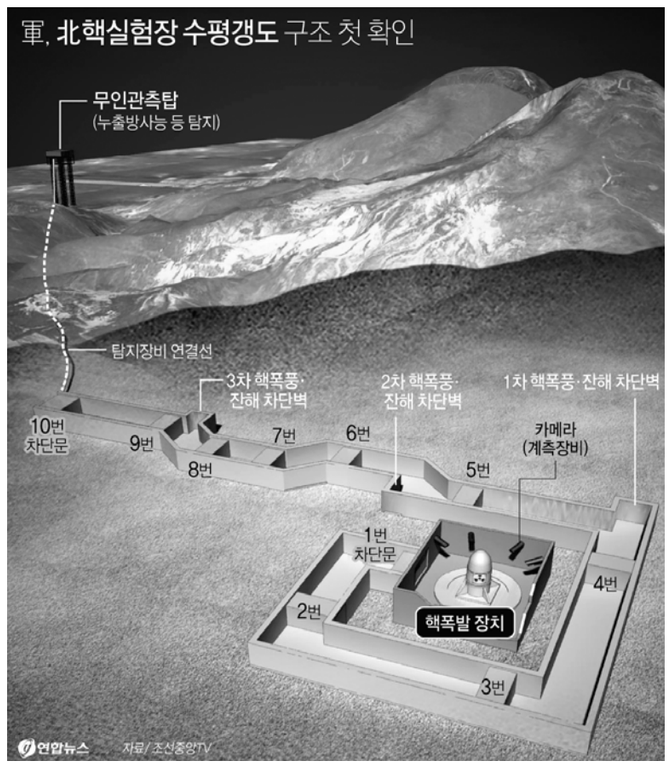
◇朴 당선인 "北 핵실험 당장 중단해야"=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계획을 당장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의 북핵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은 이런 도발로 인해 어떤 것도 얻을 것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만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도발을 중지하는 것만이 미래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또 외교국방통일분과에는 "정권 교체기의 북한의 도발위협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개성공단 향하는 차량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4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측 차량들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핵실험시 단호 대처"

한미외교장관 전화통화로 재확인

동해서 연합 해상훈련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양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존 케리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 밤 10분가량 전화통화를 했다고 외교통상부와 국무부가 4일 밝혔다.

미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전화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 단호히 대처하는 등 북한·북핵문제 관련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2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이달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4일 동해상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오는 6일까지 사흘간 지속할 이번 해상훈련은 북한 핵실험 준비와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은 지난달 31일 진해와 부산에 각각 입항한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6900t급)'과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9800t급)'이다.

우리 군의 전력으로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 한국형 구축함(DDH-Ⅱ), 초계함, 214급 잠수함 등 10여척의 함정과 대잠초계기(P-3C), 대잠헬기(링스) 등이 참여한다.

이날 오전 부산항과 진해항 등에서 출발한 한미 해상전력은 오후에 훈련 지역인 포항 및 울진 동방 해상에 모여 항공기 및 미사일 추적 훈련 등을 실시한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잠수함 추적 및 탐지 훈련 ▲종합기동훈련 ▲대공·대함 사격훈련 등이 실시되고,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대함 사격훈련 ▲미사일 탐지훈련 ▲종합기동훈련 등이 진행된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기자 노트

어느 유물 수집가의 죽음

"인류사 대발견이냐 희대 사기극이냐" 지난 2007년 9월1일자 광주일보 1면에 실린 머리 기사다.

기사의 주인공은 김희용(당시 59·광주시 북구)씨였다. 그는 16년 동안 수집했다는 흑피옥(黑皮玉) 조각상 500여점을 광주일보에 공개했다. 표면이 검은 옥(玉)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남녀 성기과장, 동물형상, 신(神), 인간과 동물의 결합체 등이었다. 그 정교함과 세련미에는 유물감정에 동행한 고고학자도 '만약 진품이라면…'하고 혀를 내둘렀다.

윤영기 문화부 차장

김씨는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외면하지만 역사에 등장하지 않은 초고대 문명의 유물이다. 중국 네이멍구 우란차푸시에 묻혀있는 유적지와 유물을 필사적으로 추적했다"고 절규했다.

그가 지난달 25일 유물·유적의 실재와 역사적 가치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지 못한 채 영면했다. 7년여 동안 중국 당국에 흑피옥 발굴을 촉구해온 그의 족적은 가볍지 않다.

지난 2008년 중국 당국은 김씨의 지인에게 보낸 국가 문물국(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해당) 명의의 공문에서 흑피옥 출토지점을 알려준다면 현장을 답사할 의향이 있다고 발굴의지를 표명했다. 국가문물국이 주도해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씨에게는 현장 참여를 허락하지 않고 발굴 진행상황도 알려주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이 흑피옥 도료의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구석기시대 후기인 1만4300년 전(± 60년)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어내 김씨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럼에도, 국내 주류학계는 김씨의 주장을 외면했다. 이제 그가 떠난 마당에 그의 죽음을 남의 나라에 있는 신문명의 존재를 주장해온 한 괴짜의 명운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의 삶은 우리 역사학계가 받아들여야 할 경종에 가깝다. 그의 삶이 역사와 유물, 유적을 엄숙하게 대해야할 학계의 책무를 웅변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측이 유물의 존재를 시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흑피옥의 진위 여부 등을 놓고 벌이는 논쟁도 무의미하다. 김씨의 주장대로 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는 신문명이라면 '남의 나라 것'이라고 치부하기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연고권을 갖고 있는 유물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고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뇌리에 맴돈다. "중국당국이 유적과 유물 모든 것을 갖되, 그 발견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만 해주면 여한이 없어."

/penfoot@kwangju.co.kr

첩첩산중에 화강암… 방사성 유출 적어

■ 北 3차 핵실험 예상 풍계리 어떤 곳

세계의 이목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풍계리는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해 기운봉, 학무산, 연두봉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지역이다.

이곳은 암반이 화강암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핵실험 장소로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미 정보 당국은 풍계리 인근 지역의 굴착 움직임을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해왔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쪽과 서쪽에 'ㄴ'자 모양의 지하 갱도를 뚫고 지난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은 동쪽 갱도에서,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은 서쪽 갱도에서 각각 단행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1차 핵실험 폭발력은 1킬로톤(kt)이었고, 2009년 2차 핵실험은 2~6kt 정도로 추정됐다. 킬로톤은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남구 백운동 준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160㎡ 건평330㎡ 감정가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펜션시설 대지850㎡ 건평1146㎡ 감정가11억 최저가5억

단독주택
▷광산구 소촌동 2층단독주택 대지158㎡ 건평177㎡ 감정가9천만 최저가6천만
▷광산구 지평동 1층농가주택 대지208㎡ 건평76㎡ 감정가2천6백만 최저가1천8백만

공장및창고
▷광산구 월전동 평동공단내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8억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단내 2층공장 토지1504㎡ 건물996㎡ 감정가15억3천 최저가12억2천만
▷장성군 동화면 2층공장 토지1983㎡ 건물2320㎡ 감정가7억 최저가3억9천만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7억3천 최저가8억8천만

토지매매
▷장성군 삼서면 관리지역 전,임야 36996㎡ 감정가5억3천만 최저가3억7천만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7천만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남로 대지 80 건평 300 감정 17억선 5층은 공실 전세 1억2천 월650만원 매도 11억
• 요양병원적합 화순군 도곡온천지역 대지 1712건평 1681 대출10억 매도18억
• 광주역앞 4차선 도로 5층 건물 대지100 건평 370 대출 5억3천 5층은 공실 전세 6천 월 450 매도 7억원
• 함평군 월야면 요양시설, 정신병원 적합 대지 3369 건물 3동 1116평 대출 3억 매도6억9천
• 양동 월파부근 신축건물 대지 132 건평 195 감정은 11억이상 임대없음 대출 4억 5천 매도 7억2
• 대인동 소방서 4거리 부근 상업지 210평 건물은 2층구조 158평 공시지가 11억7천 매도 12억
• 서방시장 4거리 상업지 356평 건물 867 층축해서 병원, 요양시설 적합 공시가 23억4천 매도19억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양금성 대지 275 주택 52평 1억4500
• 광주역앞 중흥동 대지 108 건평 397 원룸6 투룸17 대출3억 전세 8천에 월400만원선 7억
• 북구 우산동 대지 100평 건평 412평 대출 6억 보증금 8천에 월세는 900만원선 매도 10억
• 화순군 도곡온천 가든 대지 433 건평 158평 5억3천
• 봉황면 철처리 땅 770평 주택 31평 전원생활 적합 아파트나 상가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나대지
• 별장부지 화순읍 수만리 371평 1억7천
• 별장용주택 순창군 회문산 대지 396평 1억5천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400평 가든 등 여러용도 타물건과 교환가능 2억8천
• 화정동 화정역 인근 대로변 준주거 334평 오피스텔형 생활주택적합 대출 10억 매도 17억 3천만원
• 함평 해보면 문장 4거리 100평 상가적합 1억 4천
• 비닐하우스 시설 나주시 봉황면 답 1417평 시설 600평 농협 대출 1억3천 매도 2억원천만
• 북동 상업지역 300평 원룸 오피스텔 적합 7억8천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물건 처분해 드립니다.
●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계시나요? 전국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땅이 있으십니까? 은행 대출에서 건축, 분양까지 상담해드립니다.
● 골프장 18홀, 골프장 9홀, (상담환영)
● 전국 랜드마크 빌딩 다량 확보!
● 10억! 50억! 100억! 200억 물건 다량 보유 및 구함.
● 고객 비밀 보장.
●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은분은 전화접수 후 사무실 내방하시면 귀한시간 내주신만큼의 보답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맞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평생 고객에게 신뢰를 남기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매 물 ■
1.서구 상무지구 메인도로 최고 상권 초대형빌딩.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건물로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상가.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2. 서구 상무지구 내 물좋은 사우나. 대지 524평
3. 서구 상무지구 중심상업에 있는 건물로서 월세 수익률이 높은 빌딩. 대지 151평, 건평 939평.
4. 서구 상무지구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중급 호텔 .
5. 서구 광천동 최고 요지 빌딩 (광고효과, 투자가치 최고) 대지 850평, 건평 2,620평.
6. 북구 초대형 사우나 대지 1,932평 건평 2,710평.
7. 서구 치평동 상가 밀집된 중심상업지역 최고 요지 .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8. 송정리역 부근 상업지역 내 저렴한 땅 1,150평. (투자유망)

☎ 956-6660 / 010-2139-6255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 지(매매)
• 용 도 •
전원주택, 과수원 연수원, 절, 한옥마을 등
• 면 적 •
16,789평방미터(약5,078평)
• 위 치 •
백암산 남측(장성호위)
• 대표지번 •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7-14번지에17필지
• 매각금액 •
5억5천만 원
■ 설 명 ■
위 토지 는 장성 백암산남쪽 아래로 5,078평 전부가 사용가능한 토지로서 좌청룡 우백호의 지형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땅으로 본토지에서 남쪽으로 장성호가 내려다보이며 본토지의 좌우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5, 6년 전 이미 토지의 토목작업이 다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소 잡초가 우거진 상태입니다.
1. 본토지 는 한옥마을로 적합하며
2. 또한 전원 농장을 겸한 가족묘지
3. 오염원이 전혀 없는 과수원
4. 조용한 절,기도원
5. 회사의 연수원등으로 적합합니다.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나 1톤트럭은 마음대로 가능함
본토지는 당 중개업소에서 전속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0-3609-5221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